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자	조가영
이메일	gayeong96@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17

보 도 자 료

한국영화사에서 가장 많은 작품 연출한 김수용 감독의 25년 검열 역사 전격 공개

: 단일 감독 검열자료 컬렉션 중 역대 최다
 : 25년간의 검열자료 101편, 약 5,700쪽 분량 온라인 공개



▲ 김수용 감독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28일부터 한국영화사의 거장 김수용 감독 영화에 대한 검열자료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영상자료원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만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영화연구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영상자료원이 운영하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를 통해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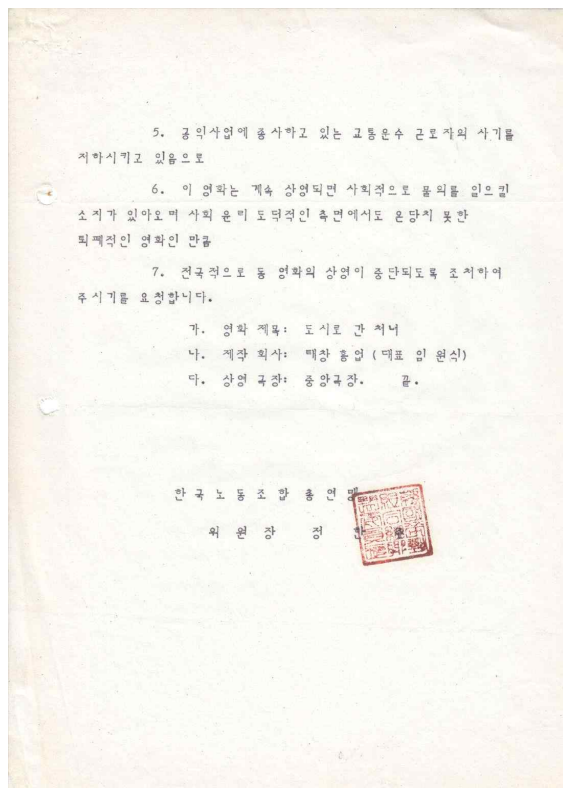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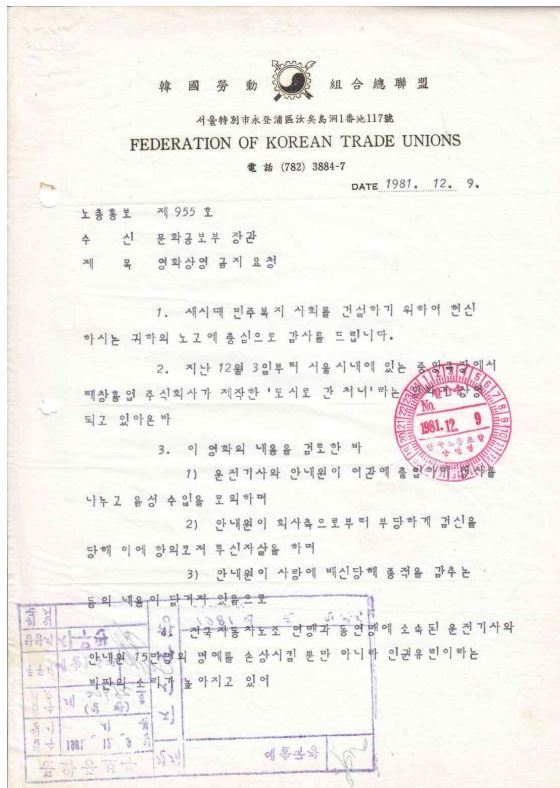
김수용은 한국 장편 극영화 기준 106편을 연출하여 한국감독 중 공식 기록에 따른 최다 연출 기록을 가지고 있다(그가 연출한 홍콩영화 2편과 일본영화 1편을 포함할 경우 109편). "김수용 감독 검열자료 컬렉션"에서는 <도시로 간 처녀>(1981) 등 101편의 영화에 대한 검열 관련 서류를 원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컬렉션은 연구자는 물론 대중들이 김수용의 영화 세계, 나아가 한국영화사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이자 국가와 대중문화의 관계를 고찰하는 사료가 될 것이다.

□ 단일 감독 검열서류 컬렉션 중 역대 최다

김수용 감독은 김기영, 이만희, 신상옥, 유현목 등과 함께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거장 감독으로 손꼽힌다. 한국전쟁 당시 국방부 정훈국 영화과에 배속되어 홍보영화를 찍다 1958년 <공처가>로 데뷔한 그는 <혈맥>(1963), <갯마을>(1965),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5), <안개>(1967), <산불>(1967), <토지>(1974) 등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다수의 작품을 연출하였으며, 1999년 <침향>까지 무려 109편(홍콩 및 일본영화 연출작 3편을 제외할 경우 106편)의 장편 극영화를 연출했다. 한국 영화감독 중 최다 연출 기록이다.

이번에 공개될 "김수용 검열자료 컬렉션"은 106편의 연출작 중 101편의 검열서류로 구성되었다. 김수용 감독의 연출작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서류의 보존율 역시 높아 단일 감독의 검열서류 컬렉션으로는 단연 압도적인 양을 자랑한다. 101편의 영화 검열서류는 1959년 작 <삼인의 신부>에서 1984년 작 <저 하늘에도 슬픔이>까지 대략 25년간 분포돼 있다. 각각의 서류는 적게는 4쪽에서(<부부독본>(1961)) 많게는 265쪽(<서유기>(1962)) 분량이며, 총 5,706쪽의 방대한 규모다. 영화 1편당 평균 50쪽을 약간 상회하는 분량이다. 물론 그 가운데 민원 서류에 구비해야 할 다양한 방계 서류(세금납부증명서 등)나 수입인지가 상당 분량을 차지한다. 이 서류들은 검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지만, 이를 통해 다양한 검열의 일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이기도 하다.

□ 25년간의 검열자료, 김수용 컬렉션의 진정한 가치



▲ <도시로 간 처녀> 한국노총 상영금지 요청

“김수용 검열자료 컬렉션”의 가치는 100편이 넘는 양 그 자체에 있다. 즉 25년간 약 100편의 검열서류가 있다는 것, 1년에 4편 이상의 검열서류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25년간의 검열과 기타 행정의 변화를 몇 개월 단위로 비교적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코미디, 가족드라마, 사극, 멜로드라마, 문예물, 계몽 정책물, 반공 분단물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의 검열 경향, 합작영화나 로케이션 영화에서의 영화검열과 행정에 대한 서류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대표적인 검열 관련 이슈로는 버스 안내양들의 노동환경과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도시로 간 처녀>를 들 수 있다. 공연윤리위원회(공윤)로부터 우수영화로까지 지정받았으나, 버스 안내양의 현실을 지나치게 열악하게 그렸다는 이유로 전국 자동차노동조합 연맹과 한국노총의 항의를 받아 제작사가 상영을 중단했다. 이후 제작사의 재편집 후 겨우 재상영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은 1980년대 들어 정부의 검열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직능단체나 직종, 관련 이해당사자에 의한 검열이라는 주제가 부상하는, 한국영화 검열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그 외에도 퇴폐적이고 지나친 정사 장면이 많다는 이유로 1차 본편 검열에서 불합격하여 제작사의 대규모 재편집으로 겨우 검열을 통과한 <야행>(1977), 안보상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의 검열을 두 차례나 받은 <까치소리>(1967), 인간의 어두운 면이 “북괴”의 역선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중앙정보부의 경고를 받은 <수전지대>(1968) 등 다양한 검열의 상흔을 이 컬렉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김수용 영화의 검열서류 원문은 28일(수)부터 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www.kmdb.or.kr) 컬렉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컬렉션에 대한 약 300쪽 분량의 해제 분석 글을 내려받을 수 있다. 본 컬렉션은 향후 한국영화의 검열사 뿐 아니라, 한국영화사 나아가 대중문화의 역사 전반을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컬렉션 링크 안내>

김수용 검열자료 컬렉션 : <https://www.kmdb.or.kr/collectionlist/detail/view?colId=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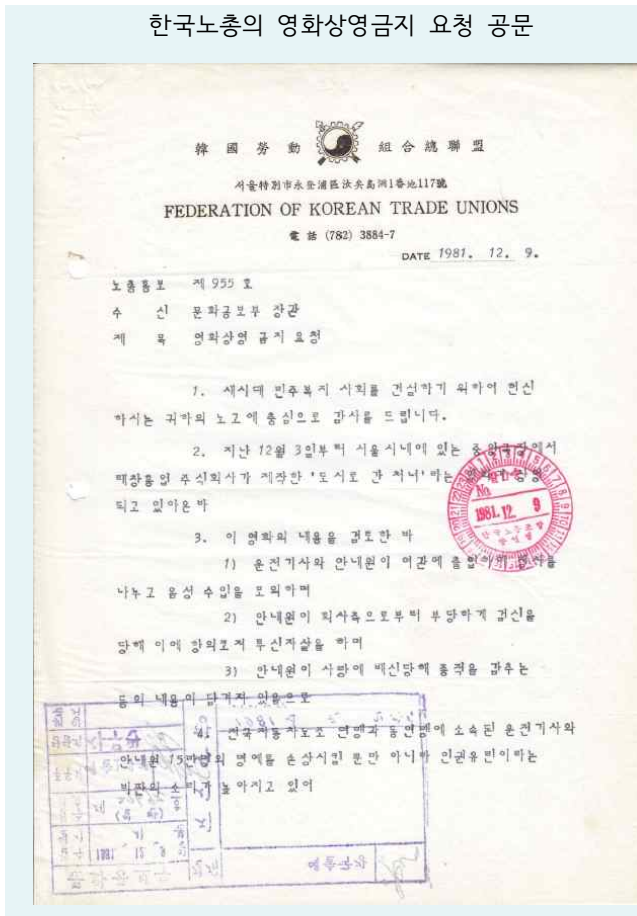
김기영 검열자료 컬렉션 : <https://www.kmdb.or.kr/collectionlist/detail/view?colId=281>

이만희 검열자료 컬렉션 : <https://www.kmdb.or.kr/collectionlist/detail/view?colId=261>

유현목 검열자료 컬렉션 : <https://www.kmdb.or.kr/collectionlist/detail/view?colId=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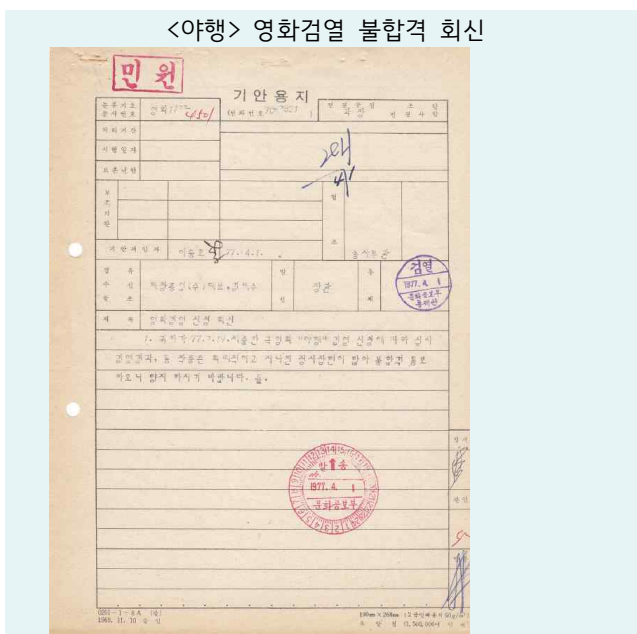
[참고자료]

<도시로 간 처녀> 사례



이 영화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 연맹 등의 반대로 상영이 중단되어 큰 물의를 빚었다. 한국노총이 작성한 “영화상영금지 요청”(81.12.9)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이 사유를 들고 있다. “1) 운전기사와 안내원이 여관에 출입하여 정사를 나누고 음성 수입을 모의하며 2) 안내원이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검신을 당해 이에 항의코저 투신자살을 하며 3) 안내원이 사랑에 배신당해 종적을 감추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으로 전국 자동차노조 연맹과 동 연맹에 소속된 운전기사와 안내원 15만명의 명예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공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통 운수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으로, 이 영화는 계속 상영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오며 사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온당치 못한 퇴폐적인 영화인 만큼 전국적으로 동 영화의 상영이 중단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야행> 사례



<야행>(1977)의 1차 본편 검열에서 문공부는 퇴폐적이고 지나친 정사장면이 많다는 이유로 검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제작사 측이 대폭적인 재편집을 한 후에 검열을 재신청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재편집에도 불구하고 상영허가시 화면삭제 9, 화면단축 1, 대사삭제 2개처 총 12개 처의 대폭적인 제한명령을 받았다. 1977년 명보극장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13만 5천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그 해 한국영화 흥행 5위에 올라 이 시기 성인영화의 유행을 주도했다.